

식도 협착의 수술적 치료; 후두 보존 식도 재건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¹, 흉부외과학교실², 외과학교실³

김민식¹ · 조건현² · 이명덕³ · 최지영¹ · 선동일¹ · 주영훈¹

배경 및 목적 :

식도협착은 대부분 후천성으로 식도의 반흔 형성에 의한 반흔 협착이 대부분이다. 원인은 부식제의 연하가 가장 흔하고 내시경, 확장기 등의 기구사용과 이물에 의한 외상성 협착도 원인이 된다. 치료는 식도확장술과 수술요법이 있으며, 수술은 대개 확장술로 치료가 불가능할 때 시행된다. 이에 저자들은 본원에서 최근 4년간 경험한 식도 협착의 수술적 치료로 후두 보존 식도 재건술을 후향적으로 고찰하여 향후 식도 재건술의 선택에 있어서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 병원에서 식도 협착으로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로 식도 재건술을 시행한 7명의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

남자가 2명 여자가 5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51.3세였다. 6명은 부식제의 연하에 의한 식도 협착이었으며 1명은 갑상선암의 식도 침범에 의한 식도 협착이었다. 재건 방법은 전완부 유리피판을 이용한 경우가 3례, 전외측 대퇴부 유리 피판을 이용한 경우가 1례, 대장을 이용한 경우가 2례, 위간치술을 이용한 경우가 1례였다. 대장을 이용한 1례를 제외하고 모든 례에서 피판의 괴사 등 재건술의 실패는 없었으며 공여부의 기능 결손은 없었다. 모든 예에서 후두를 보존할 수 있었으며 유동식 이상의 식이가 가능하였다.

결 론 :

다양한 재건 방법에 의한 후두 보존 술식이 식도 협착의 수술적 치료에 유용한 방법으로 생각한다.